

## 정기후원

(자동이체로 더 편리해진 후원)

심포니 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4 시즌 후원 회원 모집



목표회원: 100명

## 후원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마스터즈 시리즈 티켓 할인 (10%) \*1회 한

# 매달 활동사항과 공연정보 제공

# 오픈 리허설 참관특혜

# 연 2회 살롱 콘서트 초청

# 예술감독과의 연례 대화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 SHOSTAKOVICH & MENDELSSOHN

쇼스타코비치와  
멘델스존

쇼스타코비치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Shostakovich | Violin Concerto  
No. 1 in a minor

멘델스존 |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  
Mendelssohn | Symphony No. 3  
in a minor 'Scottish'

# 03.21

THU 7:30PM

지휘 함신의

#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이사**  
곽진오  
김희련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감사**  
김일규

##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 2023 - 2024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 마스터즈 Circle

노루그룹

EG

풍산

### 말러 Circle

세봉

에프에스티

티에스이

K2Webtech

###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골프존

GFS

### 브루크너 Circle

윤정웅

김석수

### 슈베르트 Circle

신승일

면사랑

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김일규

함성익, 최영애

### 베토벤 Circle

에스앤아이

엔피코리아

한수향

### 쇼팽 Circle

다진

이경혜

송백규

문형주

안정근

### 모차르트 Circle

김원호

내자인

서석호

신영만

유애리

이근혁

이성재

전홍구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 하이든 Circle

고윤영

계양 수치과

권영성

권용관

김기태

김성렬

김영기

김은주

김종혁

김종훈

박진형

백방미

봉옥 법률사무소

유재천

이미영

이숙희

이윤희

이응돈

장윤정

조백일

조수린

최상욱

코스모엠

한문성



##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 송)’은 지휘자 함신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사회공헌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신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 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한다.

###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 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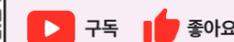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Symphony S.O.N.G**  
T.02-549-0046 F.02-549-0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B1  
<http://symphonyso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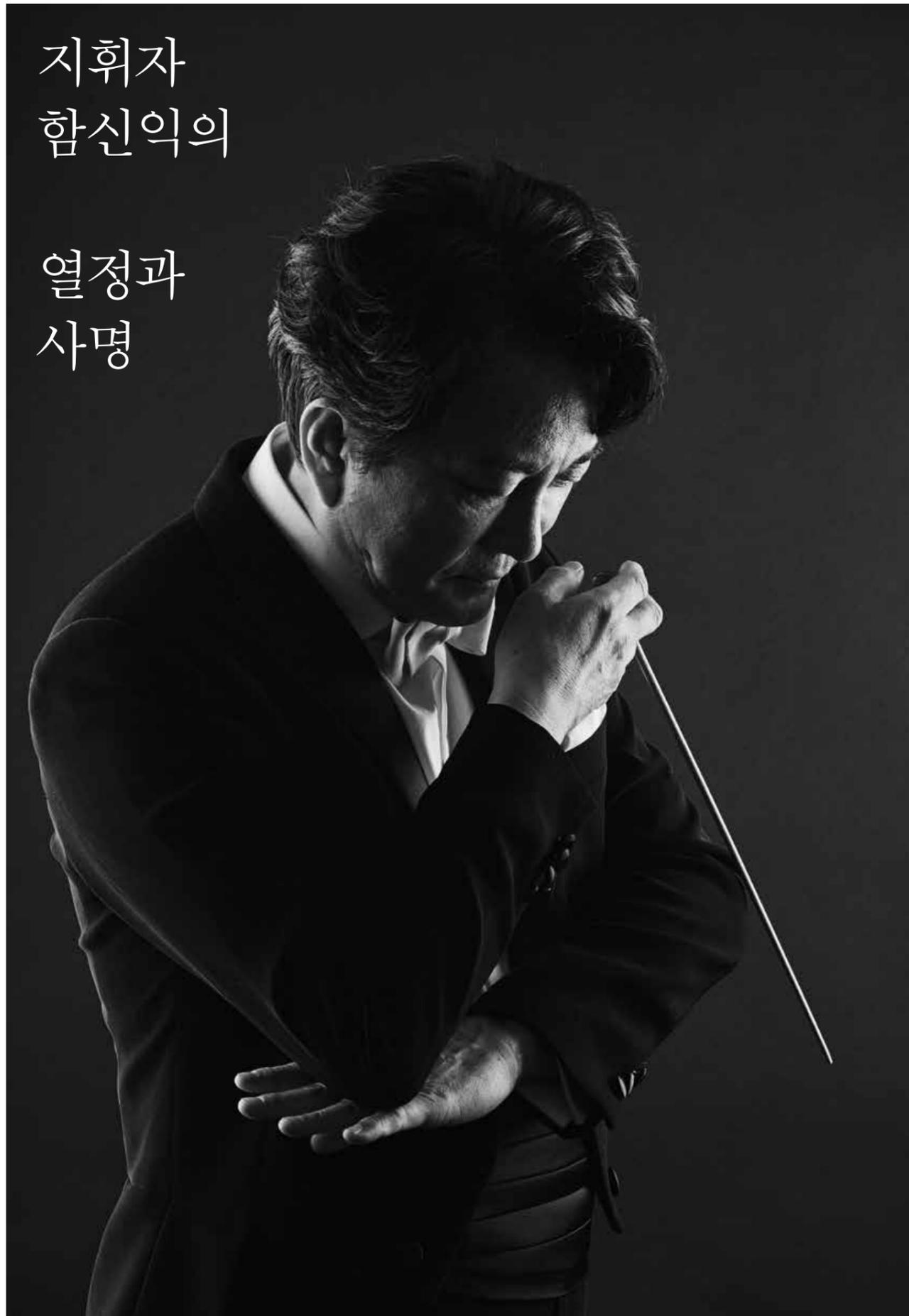


**심포니 송 YOUTUBE**  
검색: 심포니송



# 지휘자 함신익의

# 열정과 사명



###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

함신익의 여정은 평탄한 길을 걷는 여행가보다는 끊임없이 험준준령에 도전하는 등산가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와 가깝다. 소년 시절, 서민들의 애환이 가득한 삼양동 달동네의 개척교회에서 풍금으로 음악감성을 깨우치고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에 대한 꿈을 꾸었다.

초·중·고 학생시절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며 혼신을 다해 빠르게 달리는 축구에 흥미를 가졌다. 지금은 매일 같이 산에 오르며,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음악과 축구와 자연은 자연인 함신익의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주제이자 요소가 되었으며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으로 연결되어 대부분의 연주자들과는 다른 특이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 소금 같은, 보석 같은 지휘 능력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와 이스턴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 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시키며 프로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지휘공쿨에 입학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지휘자 함신익이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깨고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달린다. ———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록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을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자크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 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 기적의 지속가능한 성장

2020년 시즌 이후 코로나로 인한 클래식 음악계의 불황은 민간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나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 한 번의 연주도 취소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연주를 성공적으로 소화해낸 바 있다. 2014년 창단된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지휘자 함신익이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깨고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달린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 한수진은 유학 중인 부모를 따라 2세에 영국에 가서 5세에 피아노를 8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런던의 소수정예 영재 음악학교인 예후디 메뉴힌 학교에 입학하고 퍼셀 음악원, 옥스포드 대학, 런던 왕립음대,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국제 솔로연주자 과정을 거친 재원이다.
- 10세에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비발디 협주곡 협연, 12세에 위그모어 홀에서의 첫 독주 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연주하고 13세부터 영국의 각종 콩쿨과 음악상을 휩쓰는 성과를 거둔다.
- 15세에 매 5년마다 열리는 비에니아프스키 국제콩쿨에서 최초의 한국인으로, 콩쿨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로 2등 입상과 함께 음악평론가상, 폴란드 방송 청취자상 등 7개의 부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 18세에 코리안 심포니와 정명훈의 지휘로 한국 무대에 데뷔하였고 그 연주는 폴란드 국영방송, 한국 KBS FM,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방송되었다.
- 안드라스 쉬프, 기돈 크레머, 유리 바쉬메트, 프랑크 헬머슨 등과 실내악을 연주하였고 런던 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심포니 송, 국립심포니 등과 협연하였으며 유럽,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무대에서 탁월한 음악적 역량을 선보여 왔다.
- 뿐만 아니라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 및 한-태도국 정상회의 자문위원,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수석 예술감독, 사랑의 바이올린 홍보대사, 제주 프랑스영화제 홍보대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666년 산 Antonio Stradivarius로 연주하고 있다.

2023년 작년부터 함께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심포니 송 첫인상

우선 함신의 선생님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리딩이 인상적이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단원 한분 한분이 세심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연주에 임하시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오케스트라임에도 실내악을 하듯 연주할 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서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듯 리허설했던 즐거운 추억에 이어 이번 연주에도 좋은 앙상블이 기대됩니다.

약 10년전 부상으로 인한 긴 공백기 이후

다시 현역 연주자로 복귀하였을 때의 감정

처음엔 휴식을 취해서 기뻐다가 수술과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감사함과 편히 숨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걸어다닐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당연시 했던 음악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기였기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을 때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사와 함께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해 한국 한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공연 하나 하나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하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음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앞으로의 연주 계획

4월 15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음반발매공연이 있고 그 이후로 부천 아트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오프닝 공연, 서울스프링 페스티벌, 폴란드와 미국 오스틴 심포니와의 협연 등 국내 외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Dmitri Shostakovich

(1906 ~ 1975)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Violin Concerto No.1 in a minor, Op.99 (77)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마단조

- I. Nocturne: Moderato ..... 녹턴
- II. Scherzo: Allegro ..... 스케르초
- III. Passacaglia: Andante – Cadenza ..... 파사칼리아
- IV. Burlesque: Allegro con brio – Presto ..... 벌레스크

Felix Mendelssohn

(1809 ~ 1847)

펠릭스 멘델스존



Symphony No.3 in a minor, Op.56 'Scottish'

교향곡 제3번 마단조, '스코틀랜드'

- I. Andante con moto – Allegro un poco agitato ..... 느리지만 활기차게
- II. Vivace non troppo ..... 너무 빠르지않게
- III. Adagio ..... 느리게
- IV. Allegro vivacissimo – Allegro Maestoso assai ..... 명랑하고 매우 활기차게

Shostakovich — Violin Concerto No. 1 in a minor, Op. 99 (77)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마단조



세계대전과 소련 사회주의 체제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from 1922 to 1991)라는 극도의 암울하고도 모순적인 시대를 살았던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yevich Shostakovich, 1906~1975). 그는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해 자유를 찾아 망명하였던 다수의 당대 러시아 음악가들과는 달리 소련에 남게 되었고 이후 정부로부터 갖은 핍박과 수모를 당하며 상당 기간 예술가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당시 소련 예술계는 즈다놉시나(ждановщина, 즈다노프 독트린, 전후 진행된 소련 내 문화계 숙청) 교리라고 불리는 문화 혁명화 정책 아래 있었다. 이는 문화-예술 풍조를 인간 사회주의 혁명화(社會主義革命化)를 위한 문화적 코드(код)로 등치할 수 있기에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문화를 적극 홍보, 선전해야 하며, 부르주아·자본주의·제국주의·서구 문화를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는 노선이다. 이는 1960년대 중국공산당의 문화 대혁명 노선으로 연결되어 수많은 문화, 예술계인사에는 강렬한 영향을 주었으며, 북한의 문화-예술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스탈린 숙청 시기였던 당시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무참히 처형되던 상황에서 예술계에 주어진 이러한 정책은 예술가들의 결코 자유로운 창작은 물론이거니와 체제에 대한 그 어떤 직, 간접적인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사실 쇼스타코비치는 일찍이 러시아 혁명과 레닌을 찬양하는 곡(교향곡 2, 3번 및 첫 번째 오페라 “코”)을 발표하면서 친 체제성향의 예술가로 분류되어 공산당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1936년 그의 두 번째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Леди Макбет Мценского уезда, 1934)”이 친 사회주의 플롯으로 극이 구성되었지만 음악적으로 묘하게 체제를 비꼬는 듯하다며 의심을 받다가 프라브다 신문사(Pravda)에 의해 강한 비판(형식주의 비판)을 받게 된다. 이듬해인 1937년부터 수많은 그의 친구와 친척(아내 니나의 어머니 소피아 바자르, 매형과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던 누나)들이 포로수용소에 유배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형되는 등 천재 음악가를 둘러싼 공산당 정부의 협박과 만행은 끔찍하였다. 자신의 지인과 가족이 직, 간접적으로 자신의 작품으로 인해 핍박당하는 폭력 앞에 극도로 위축되었던 쇼스타코비치는 결국 조금이라도 비판의 소지가 있을 법한 그의 차기작 4번 교향곡 발표를 포기하고 이후 철저한 디자인을 통해 의도적으로 체제 선전용 작품(교향곡 5번과 7번, 영화음악과 오라토리오 등)을 작곡해 공산당에게 갖다 바치며 목숨을 연명하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그는 수차례에 걸쳐 레닌상, 사회주의노력 영웅상, 레닌훈장, 혁명훈장, 소련 국가상, 및 스탈린 예술 상 등을 받게 된다.

소련의 예술적 애국 영웅으로 칭송받던 쇼스타코비치는 1945년 그의 9번 교향곡이 나치를 누르고 러시아가 거둔 승리를 불충분하게 표현했다고 비판받게 되면서 생의 두 번째 시련을 맞게 된다. 사실 9번 교향곡은 그 1악장에서부터 체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교묘하게 채워져 있다. 물론 가사가 없는 추상적인 기악곡인지라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후대에 와서 그의 행적과 의도를 이해하고 곡을 들여다보면 그 반어적 어조는 매우 분명하다. 공산당 문화 위원회(Supreme Soviet of the RSFSR)에서 이를 눈치챘고 1948년 프로코피예프와 하차투리안과 더불어 부르주아 형식주의에 매몰된 작곡가로 판결 받게 된다. 위원회는 그들의 교수직을 박탈하였고 모든 작품에 관해 공연금지처분을 내린다. 또한 매주 수차례씩 위원회에 출석하여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을 작성케 한 후 낭독하도록 하였다. 수치스럽고 굴

Shostakovich

## Violin Concerto No. 1 in a minor, Op. 99 (77)

Dmitri Dmitriyevich Shostakovich (1906-1975) lived through an extremely dark and contradictory era marked by the World Wars and the Soviet socialist regim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from 1922 to 1991. Unlike many contemporary Russian musicians who escaped the communist homeland in search of freedom, Shostakovich chose to remain in the USSR. However, he endured persecution and hardship from the government, losing his rights as an artist and as a free individual. During this time, the Soviet artistic community operated under the strict cultural policies known as Zhdanovism (ждановщина), named after Andrei Zhdanov, involving cultural purges within the Soviet Union. This policy aimed to revolutionize cultural and artistic trends as codes for the socialist revolution. To advance towards communism, it was deemed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and propagate revolutionary culture, while thoroughly destroying bourgeois, capitalist, imperialist, and Western cultural influences. This policy, linked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ultural Revolution in the 1960s, had a profound impact on many cultural and artistic

육적인 날들을 보내게 되지만 공산당에서는 그를 아직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유배를 보내거나 처형하지는 않았다. 결국 6개월 만인 1949년 여름 체제선전용 오라토리오 숲의 노래(1949)를 작곡해 공산당 정부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체제에 다시 한번 더 협력하게 되고 연주 금지처분을 면하게 된다. 이후 스탈린상 등 수많은 예술상과 더불어 다소 간의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이 곡은 그를 향한 공산당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했던 시기였던 1948년에 완성되었다. 곡은 다분히 체제 비판적이며 러시아 공산주의 정권의 자국민과 예술가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가운데 비참하리만큼 무기력하고 비겁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일종의 음악적 자화상 형태를 띠고 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식민지배에 저항할 때 글 뒤에 숨어 머뭇거리는 자신의 소극적인 모습을 미워하며 써낸 윤동주 시인의 시 “자화상”이 연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위원회에 불려가 거짓으로 반성문 낭독하며 죄를 뉘우치는 쇼를 해야 했던 쇼스타코비치의 수치스러운 모습과 윤동주의 부채의식이 연결되어 마음이 무겁다.

자화상 -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2악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음형화한 동기 DSCH(D#-E-C#-B)를 사용해 표현하는데 이러한 동기는 음악사적으로 딱히 새로운 것은 아니나 쇼스타코비치가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당연히 그는 이러한 문제작을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가 스탈린 사후 예술계 탄압에 대한 비판이 드세지기 시작할 무렵 자신의 10번 교향곡이 성공한 이후에나 세상에 곡을 내놓을 수 있었다. 이러한 7년의 공백기 때문에 이 곡은 2개의 작품번호(Opus Number)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Op.99 (77) 등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1955년 10월 29일 소련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솔로 (그에게 헌정됨), 예프게니 므라빈스키의 지휘 아래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에 의해 초연되었다.

### 1악장

#### Nocturne: Moderato

도입부를 갖는 세도막 형식으로 야상곡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숙청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암울한 땅의 비극을 묘사하는 듯 저음 현에서 시작되어 바이올린 솔로로 연결된 혼돈의 주제는 그 길이가 상당히 바그너의 무한 선율을 연상시킨다.



[1악장 바이올린 도입부 주제]

figures, extending its influence to North Korea's cultural and artistic spheres.

During Stalin's oppressive regime, where innocent people were ruthlessly executed as part of political purges, the policies imposed on the artistic community allowed no room for free artistic creation or any form of direct or indirect criticism against the regime. Shostakovich initially aligned himself with the regime by composing works that praised the Russian revolution and Lenin, such as Symphony No. 2, Symphony No. 3, and the first opera, “The Nose.”

However, in 1936, his second opera, “Lady Macbeth of the Mtsensk District” (1934), raised suspicions due to its seemingly critical musical tone, leading to severe criticism, particularly from Pravda newspaper. From 1937 onwards, Shostakovich faced threats and atrocities from the Soviet government, with numerous friends and relatives, including his wife Nina's mother, Sofia Varzar, and his sister-in-law, being exiled to labor camps or executed for dubious reasons. Shostakovich, shaken by the violence surrounding his family and friends due to his works, eventually succumbed to pressure and chose to compose deliberately propagandistic works (Symphonies No. 5 and 7, film scores, and oratorios) to appease the communist authorities and preserve his life. This marked a turning point, and Shostakovich received numerous awards from the Soviet government, including the Lenin Prize, the Order of Lenin, the Order of the Red Banner of Labor, and the Stalin Prize.

Despite being celebrated as a patriotic artistic hero of the Soviet Union, Shostakovich faced his second trial

부정적인 기운과 억압된 몸부림이 고통스럽게 선율 위로 표현되고 나면 바이올린 솔로가 악장의 주요 주제를 소개한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만 삭혀내는 듯 명상적인 이 패시지는 도입부 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성이 매우 자유로워 마치 12음 음렬기법을 사용한 듯 묘한 화성적 색채감을 연출한다. 그 절정에는 첼레스타와 하프의 하모닉스 음이 장식되어 묘하다. 스탈린 독트린의 “달콤한 독약”을 표현한 듯 하다.

## 2악장

### Scherzo: Allegro

플루트와 솔로 바이올린으로 시작하는 주제는 마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의미 없는 춤을 추는 소련 인민들의 모습을 빗댄 듯하다. 그 공허한 즐거움은 80년대 미국 메탈그룹 메탈리카의 대표곡 “Master of Puppets”에서 묘사된 마약에 취해 조정당하는 삶의 모습과 연결되기도 한다. 체재의 거짓된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휘둘리는 인민들의 춤은 끔찍하리만큼 공포스럽다. 이 기괴한 춤에 작곡가가 자신의 이름 동기DSCH(D#-E-C#-B)로 참여하게 되는 장면은 소름이 돋기까지 한다.



[2악장 DSCH 동기]

이 교묘한 춤은 굴욕적인 모습으로부터 광란의 몸부림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면서 현란해진다. 살 떨리는 광기는 폭력 앞에 굴복한 자아에 대한 연민을 넘어서 혐오에까지 이를 만큼 무섭게 다가온다. 트리오에서는 영혼 없는 춤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주체가 피콜로, 실로폰, 탬버린 등으로 근악 행진곡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해학을 넘어 체재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이라고 볼 만큼 노골적이다. 곡은 다시 스케르초로 돌아오지만, 모호해질 대로 모호해진 광기의 춤은 이제 작곡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부끄러운 자화상을 극도의 광기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 놀라운 표현력에 온몸이 오싹해진다.

## 3악장

### Passaglia: Andante – Cadenza

파사칼리아 위에 주제와 8개 변주로 구성되어 있다. 엄격한 파사칼리아 형식을 통해 강압적인 폭력에 짓눌린 사람들을 표현했다.



[3악장 도입부: 파사칼리아 주제(왼손)와 호른의 팡파르]

in 1945 when his Symphony No. 9 was criticized for inadequately expressing Russia's victory over the Nazis. Symphony No. 9, from its very first movement, subtly incorporated satire and criticism of the regime. Though the piece was instrumental, later interpretations revealed its unmistakable anti-Soviet undertones when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hostakovich's intentions. The Supreme Soviet of the RSFSR noticed this, and in 1948, along with Prokofiev and Khachaturian, Shostakovich was condemned as a bourgeois formalist. The committee revoked their professorial positions, imposed a ban on all their works, and required them to attend weekly sessions to write self-critical statements. Shostakovich endured shameful and humiliating days during this period, but the communist authorities, deeming him still useful, chose not to exile or execute him. Eventually, in the summer of 1949, Shostakovich composed the propaganda oratorio “Song of the Forests” to align with the Soviet government's expectations. This act of compliance allowed him to avoid the ban on performances of his works and regain some financial support. His Violin Concerto No. 1, completed in 1948, demonstrated Shostakovich's discomfort with the Soviet regime, portraying a feeble and cowardly image of himself in the face of brutal oppression against the Soviet people and artists.

In the second movement, Shostakovich depicted his own cowardice by utilizing the DSCH motif (D#-E-C#-B), a musical motif created from the initials of his name. While this motif is not particularly new in musical history, its use by Shostakovich during such a tumultuous period provides a crucial

금관악기 코랄로 시작된 제1번주는 마치 장송행진곡을 표현하는 듯하며 솔로 바이올린과 목관 악기는 힘없는 예술가를 지칭하는 듯 애처롭지만, 처음 현에 의한 파사칼리아 주제가 그것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듯 연출되어 있다. 파사칼리아가 끝나면서 솔로 바이올린의 절규어린 카덴차가 연결된다. 작곡가의 처절한 독백과도 같은 카덴차 후 다음 악장으로 바로 이어진다.

## 4악장

### Burlesca: Allegro con brio

벌레스크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벌레스크란 진지한 작품이나 상념을 우스꽝스럽게 다루어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극을 뜻한다. 작곡가가 이 악장에서 무엇을 풍자하는지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절규와도 같은 카덴차의 몸부림을 건너차고 등장한 팀파니의 강압적인 리듬이 등장하고 목관과 솔로 바이올린에 의해 표현되는 장난스러운 광대의 춤은 스티븐 킹의 1986년 소설 “그것”에서 광대 “페니와이즈”같은 희화화된 공포로 다가온다. 모든 주제들이 한데 뒤엉켜 카오스를 형성하는 가운데 팀파니의 폭력적인 리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Mendelssohn — Symphony No.3 in a minor, Op.56 'Scottish'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마단조, ‘스코틀랜드’

표제적 또는 회화에 가까운 교향곡이다. 스토리 라인의 묘사나 고전주의식 절대주의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보다 한 폭의 풍경에 담겨진 정서를 묘사한 듯 한데 특히 감정의 스펙트럼과 선이 명확하다. 1829년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은 런던 필하모닉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하여 그의 1번 교향곡을 지휘하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영국에서 작곡가로서 그리고 지휘자로서 명성을 쌓으며 화려한 음악 활동을 펼치며 수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멘델스존은 1829년 여름, 휴가를 스코틀랜드에서 보내기로 하고 수도 에든버러(Edinburgh)를 방문하는데 그 곳에 있는 홀리루드 궁전(Holyrood Palace: 정식 명칭은 홀리루드하우스 궁전(The Palace of Holyroodhouse)으로 1128년에 데이비드 1세에 의해 세워진 홀리루드 수도원이 전신이다. 15세기부터 스코틀랜드 국왕 부부의 거주지로 사용되어 왔다)에서 17세기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 1세(Mary Stuart, 1542~1587)



의 비극에 깊은 인상을 받아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 작곡에 착수하게 된다. 메리 1세는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남편인 프랑수아 2세가 사망한 후 1561년에 스코틀랜드로 귀국하여 여왕에 즉위하게 되고 약 7년간 통치를 하였다. 종교분쟁을 가라앉히고 분열된 귀족 계층을 하나로 모으려 힘썼으며 또한 적국 잉글랜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애쓴 것으로 유명하다. 멘델스존에게 작곡적 영감을 준 사건은 질투가 심했던 남편 헬리 스튜어트가 메리 여왕의 신하 리치오와 메리 여왕과의 불륜을 의심해 리치오를 죽인 사건이었다.

clue about how he perceived himself. Unable to muster the courage to release such critical works, Shostakovich chose to conceal them until much later when the climate of Stalinist artistic oppression began to wane. Only after the success of his Symphony No. 10 did Shostakovich feel comfortable enough to reveal these compositions to the world. Due to this seven-year hiatus, the Symphony No. 10 has two opus numbers, and it is sometimes referred to as op.99 (77). On October 29, 1955, the Leningrad Philharmonic, under the direction of Yevgeny Mravinsky, premiered this symphony, dedicated to Soviet violinist David Oistrakh.

## Symphony No.3 in a minor, Op.56 'Scottish'

# Mendelssohn Symphony No.3 in A minor, 'Scottish', Op. 56

This symphony leans towards the programmatic or pictorial, focusing not so much on the description of the storyline or adherence to classical absolute music principles but rather on depicting the emotions encapsulated in a panoramic landscape. The spectrum of emotions and lines are particularly clear. In 1829, Felix Mendelssohn (1809-1847) was invited by the London Philharmonic to visit England and conduct his Symphony No. 1.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his glorious musical

7년의 통치 후 메리는 스코틀랜드 귀족들과의 권력다툼에서 패하여 1568년에 잉글랜드로 망명하게 되는데 잉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칼라일 성에 감금되어 18년을 머물게 된다. 이후 헐통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인들에 의해 반역 행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게 되었고 결국 5촌 조카이자 잉글랜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명령으로 1587년에 잉글랜드에서 참수당하며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다.

1829년에 착수된 이 교향곡은 13년이 지난 1842년에야 완성되었다. 그는 “이 교향곡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멀리 달아난다.”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이 스코틀랜드에서 느꼈던 인상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1842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1악장

### Andante con moto – Allegro un poco agitato

긴 서주부를 가진 소나타 형식으로 각 주제는 비극의 복선처럼 그 감정과 묘사가 분명하다.



[1악장 서주 주제와 제1주제]

“황혼 무렵에 우리는 메리 여왕이 살았던 궁전에 갔습니다.  
그 곳의 회전식 계단을 오르면 작은 방이 있는데, 그들은 이 계단을 올라가  
이 방에서 리치오를 발견하고 그를 끌어냈지요.  
그리고 그 곳에서 방 세 개쯤 지난 어두운 모퉁이에서 그를 처형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 곳에서 3번 교향곡의 첫 악장 도입부를 생각해냈습니다.”

제1주제에서 파생된 서주 주제는 회고적인 환상을 담는다. 제1주제는 전쟁의 말발굽 리듬과 연동되어 힘차게 진행되고 서정적인 제2주제는 메리 여왕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고전 소나타 형식의 규율을 제대로 따르면서도 홀리루드 성의 인상을 정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 2악장

### Vivace non troppo

역시 소나타 형식으로 제1주제에서 스코틀랜드 민속 선율을 차용하고 있다. 메리 여왕의 화려한 7년의 시절을 회상하듯 경쾌한 선율이 기분 좋다.



[2악장 제 1주제]

스코틀랜드 민요는 백파이프 음형의 특색을 제하고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뉘볼 수 있는데 Auld lang Syne과 같은 5음 음계 바탕의 찬송가풍과 Are Ye sleeping Maggie와 같이 십육분음표의 빠른 음형의 무곡으로 대표된다. 미국의 Southern Country 음악이 후자에서 변형, 발전된 것이다. 시종일관 명

activities as a composer and conductor, gaining fame during his several months' stay in the country.

In the summer of 1829, Mendelssohn decided to spend his vacation in Scotland and visited Edinburgh. It was there, at the Holyrood Palace, that he was deeply moved by the tragedy of Mary Stuart, Queen of Scots (1542-1587). Inspired by this event, he started composing his Symphony No. 3, the “Scottish Symphony.” Mary Stuart, originally the queen consort of France, returned to Scotland in 1561 after the death of her husband, King Francis II, and reigned as queen for about seven years. She worked to reconcile religious conflicts, unite the divided nobility, and improve relations with the rival England. A significant event that inspired Mendelssohn was the jealous suspicion of Mary's husband, Henry Stuart, who, suspecting Mary's relationship with her courtier Rizzio, killed Rizzio.

*“In the deep twilight we went  
today to the palace  
where Queen Mary lived and loved...  
The chapel below is now roofless. Grass  
and ivy thrive there  
and at the broken altar  
where Mary was crowned Queen  
of Scotland.  
Everything is ruined, decayed,  
and the clear heavens pour in.  
I think I have found  
there the beginning of my “Scottish”  
Symphony”*

After seven years of rule, Mary faced defeat in power struggles with Scottish nobility and sought refuge in England in 1568. Upon her arrival, she was immediately imprisoned in Carlisle Castle and remained there for 18 years. Due to her royal lineage, she unintentionally be-

량하고 쾌활한 어조는 스케르초를 닮아 있는데 제2주제는 사냥의 장면을 연출한다. 변형된 Scotch Snap (앞 음절이 짧은 리듬) 전통 리듬이 저음 현에서 등장하면서 1악장에 이은 말발굽 소리를 연상시킨다.

## 3악장

### Adagio

비극적이고 표제적인 서주와 종교적인 느낌의 첫 주제는 성의 예배당과 메리의 여성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행진곡풍의 장엄한 제2주제는 메리 여왕의 대관식 또는 장송행진곡을 중의적으로 묘사한다.



[3악장 제1주제]

“예배당은 지금은 지붕도 없고 풀과 담쟁이가 무성하지만  
그곳 부서진 계단 앞에서 메리 여왕이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주변은 모두 부서져 버려 퇴락하였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구멍마저 뚫려 있지요.”

## 4악장

### Allegro vivacissimo – Allegro Maestoso assai



[4악장 제1, 2주제]

마지막 악장에서 멘델스존은 게리어로(gueriero)라는 지시어를 첨가하였는데 이는 오페라 전용 음악 용어로 빠른 전쟁 행진곡 리듬을 지칭한다. 제1주제의 첫 부분에서 호른과 팀파니를 사용하여 전쟁의 장면을 연출한다. 목관으로 연주되는 제2주제 역시 행진곡 리듬으로 사용하고 있다. 메리 여왕은 1568년 귀족들과의 권력다툼에서 반란군과 전쟁을 벌이는데 패배하여 잉글랜드로 망명하게 된다. 이 악장은 그 전투를 묘사한 것이고 따라서 음악적으로 승전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멘델스존은 이를 스코틀랜드의 국가적 승리로 승화시킨다. 두 번의 장대한 코다를 통해 코랄 풍의 선율이 금관에서 웅장하게 등장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더욱 영웅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극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오래된 가치와 신념의 붕괴가 두려울 만큼 급속히 진행되는 요즘 우리는 어쩌면 멘델스존이 스코틀랜드 교향곡에서 그려낸 음악적 묘사처럼 옛 왕국의 화려했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그릇됨에 무기력하게 굴욕 당했던 쇼스타코비치처럼 부끄러운 자화상을 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개만 떨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많은 생각을 품게 하는 소중한 연주회이다.

글: 박희정 (지휘자/작곡가)

came entangled in treasonous activities orchestrated by politicians. Eventually, in 1587, she was executed by order of her fifth cousin and the reigning Queen of England, Elizabeth I, bringing a tragic end to her life.

Initiated in 1829, Mendelssohn's Symphony No. 3 was completed in 1842 after 13 years. He confessed to the difficulty he faced in expressing the impressions he felt in Scotland, stating, “The moment I grasp it, it slips away even further.” The symphony had its premiere in 1842 at the Gewandhaus in Leipzig, conducted by the composer himself.





## 심포니송의 프로들



밑에 '장서윤' 지워주세요. 감사합니다

<b>예술감독</b>	함신익			
<b>바이올린</b>	송지원 김수연 문수빈 오하은 전지은 최수영	박진형 김영은 박묘정 옥영미 정예린 표정아	임누리 김지연 박지민 이서영 조아라 최보경	김민지 김희영 박지윤 이지현 최보경
<b>비올라</b>	박하은 장서윤	김장훈 장윤정	안예림 정민	윤소은 조혜민
<b>첼로</b>	홍지희 정다인	박연주 정혜솔	오소연 허규희	이혜인
<b>더블베이스</b>	고부현 윤영진	강선률 윤철원	문지수	박소연
<b>플루트</b>	김소희	하종수		
<b>피콜로</b>	변미솔			
<b>오보에</b>	윤민규	박수진		
<b>잉글리시 호른</b>	이혜빈			
<b>클라리넷</b>	이소정	김민찬		
<b>베이스 클라리넷</b>	김현구			
<b>바순</b>	김윤지	오승은		
<b>콘트라바순</b>	어지은			
<b>호른</b>	조종현	최정은	한윤호	허건행
<b>트럼펫</b>	이진규	이혜진		
<b>튜바</b>	엄태경			
<b>팀파니</b>	Sheng-Wen Lee			
<b>퍼커션</b>	손혁진	서준호		
<b>하프</b>	추민경			
<b>첼레스타</b>	한지민			
<b>크리에이티브 팀</b>	김동아 최윤정	신현숙 한지민	유소정 Ryan Broughton	이창훈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SěAH와 함께하는  
함신익 오케스트라·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IV

10 SYMPHONY SONG  
10TH ANNIVERSARY  
2014-2024

함신익  
ORCHESTRA

# BEETHOVEN AND BEETHOVEN

피아노 김준형

## 베토벤과 베토벤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Beethoven | Piano Concerto  
No.4 in G Major, Op.58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가장조  
Beethoven |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04.19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한화와 함께하는  
2024 교향악축제  
The Wave

4.20  
SAT 17:00

2024.4.3<sup>Wed</sup> - 4.28<sup>Sun</sup>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심포니 송  
Symphony S.O.N.G

지휘 Conductor 함신익 Shinik Hahm

피아노 Piano 김준형 Junhyung Kim

PROGRAM

베토벤  
L. v. Beethoven  
피아노 협주곡 제4번 G장조 Op.58  
Piano Concerto No.4 in G Major, Op.58

베토벤  
L. v. Beethoven  
교향곡 제7번 A장조 Op.92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Kumho Cultural Foundation

김준형

소프라노 양귀비

# O! SWEET BEETHOVEN AND MAHLER

베토벤과  
말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

말리 | 교향곡 제5번 '아다지에도'  
Mahler | Adagietto from  
Symphony No. 5 in c# minor

베토벤 | 콘서트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Beethoven | Soprano Scene and Aria  
'Ah! Perfido'

말리 | 교향곡 제4번  
Mahler | Symphony No. 4 in G Major

05.21

TUE 7:30PM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지휘 합신의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SEBONG FST TSE DSK K2Webtech GOLFZON 화광교역(주) 코스모스악기 시애틀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1.1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영웅적 신년음악회  
Heroic New Year Concert

-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 지휘 합신의, 바이올린 김승수

02.22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  
Schoenfield & Smetana

- 쇠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가단조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 지휘 합신의, 바이올린 한수진
- 쇠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가단조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 지휘 합신의, 바이올린 한수진

03.2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쇼스타코비치와  
멘델스존

Shostakovich & Mendelssohn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 지휘 합신의, 바이올린 한수진

04.19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베토벤과 베토벤

Beethoven and Beethoven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 지휘 합신의, 피아노 김준형

05.21

TUE 7:30PM  
예술의전당

베토벤과 말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

O! Sweet Beethoven and Mahler

- 말리 교향곡 제5번 올림마단조 중 '아다지에도'
- 베토벤 콘서트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 말리 교향곡 제4번 사장조
- 지휘 합신의, 소프라노 양귀비



## 2024 마스터즈 시리즈에

SYMPHONY S.O.N.G 2024 MASTERS SERIES

합신의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 당신을 초대합니다

06.27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브람스 페스티벌  
Double the Brahms

- 브람스 이중 협주곡 가단조
- 브람스 세레나데 제1번 라장조
- 지휘 루이스 로라센, 바이올린 김다미, 첼로 주연선

09.26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Remembering Dvořák

- 드칭 웬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위촉곡)
-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 드보르자크 '전설'
- 지휘 합신의, 바이올린 송지원

10.21

MON 7:30PM  
LOTTE CONCERT HALL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ff Special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마단조
- 지휘 합신의, 피아노 유영욱

11.28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슈베르트와 브람스  
Schubert and Brahms

- 슈베르트 교향곡 제4번 다단조, '비극적'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라단조
- 지휘 합신의, 피아노 박종해

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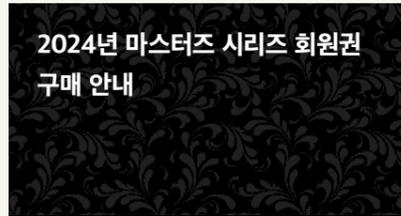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
- 지휘 합신의 국립합창단
- 소프라노 오미선
-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 테너 이명현
- 베이스 정인호

\* 본 프로그램은 주최측과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3월 31일까지 구매 시	10%	R석 7회	-700,000원 ▶	630,000원
		S석 7회	-490,000원 ▶	441,000원
		A석 7회	-350,000원 ▶	315,000원



###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6 (논현동 EG빌딩)  
B1 심포니송

###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input type="checkbox"/> R석 <input type="checkbox"/> S석 <input type="checkbox"/> A석	<input type="checkbox"/> 현장수령(추천) 수령 방식 <input type="checkbox"/>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술이 힘이다!

## 세계 최고의 전자소재기업, EG

전자기기 부품, 연료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대한민국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위한  
EG의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초와 최고의 기록으로 생활 속 친환경 소재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EG. 작은 소재 하나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자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FA부분**

이차전지 장비, 카메라모듈장비, AMR(Autonomous Mobile Robot),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Linear System, Probe, Laser

**-BIO부분**

보툴리눔 독소제제 'PROTOXIN' 을 이용한 치료제, 해독제, 바이오베터 제조/생산/판매.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터, 바이오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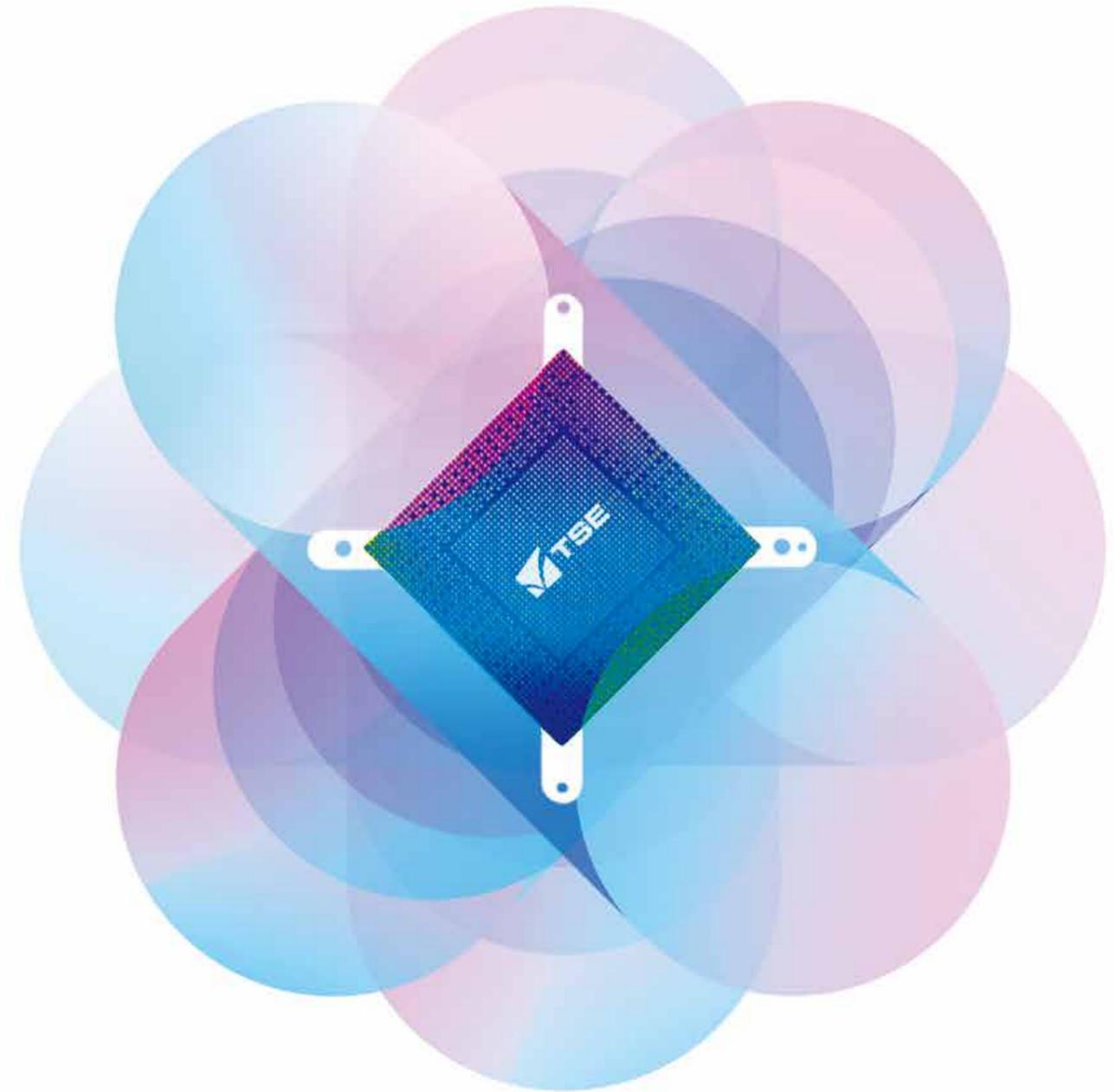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 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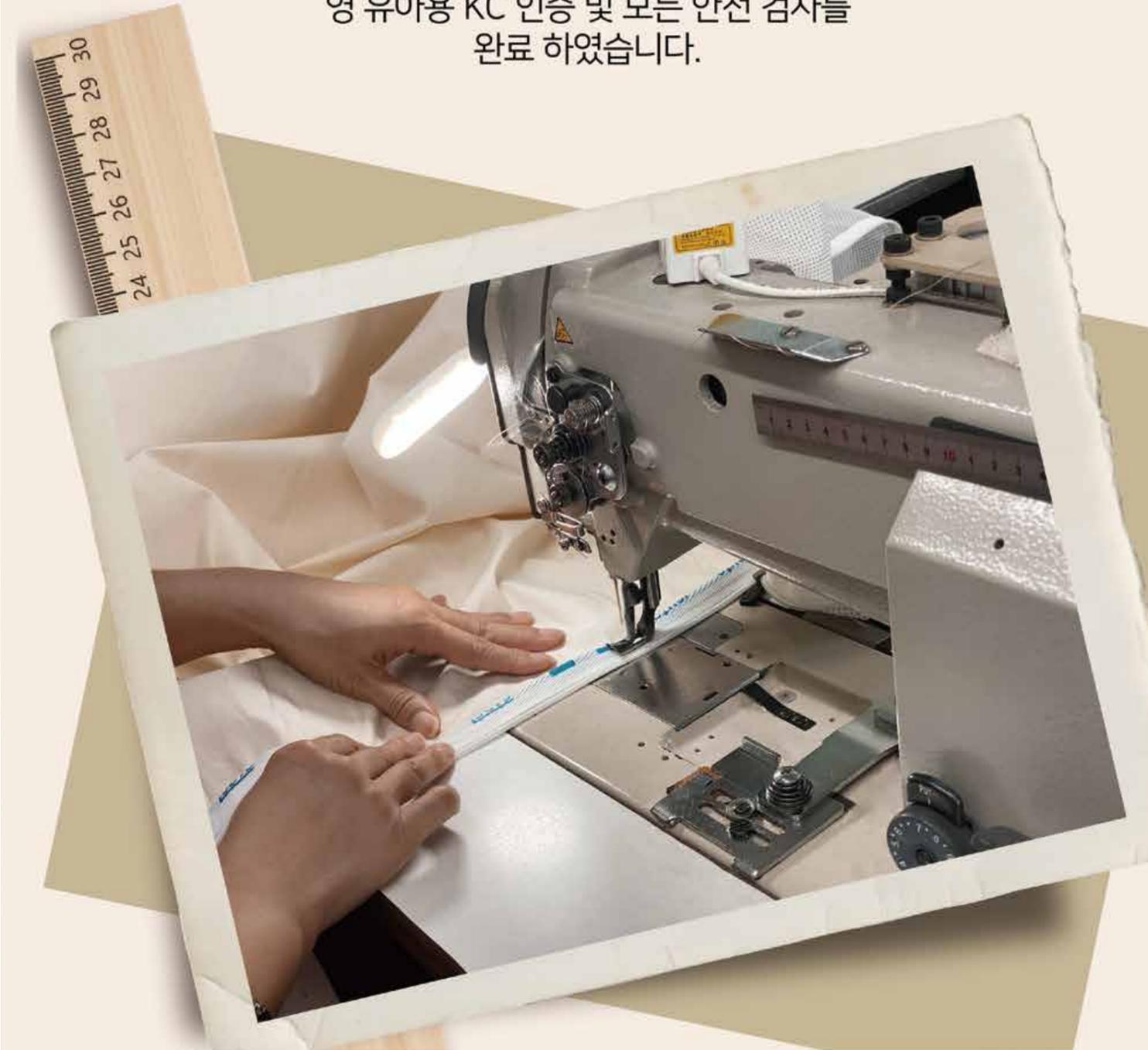
## GOLFZON NEWDIN GROUP



##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Kurly** **coupage**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 OFFLINE SHOP



###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